선림원 재가수행자, 대원 대종사에 법을 묻다

〈조계종 원로의장〉

조계사 선림원, 8월 24~25일 대웅전서 철야정진

선지식 초청 대법회 일환

300여 대중 3년만에 모여

원로의장 직접법문 이례적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중께서는 산승에게 선에 대해 말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오늘 이 산승이 학림사 절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선에 대한 것을 남김없이 마쳤습니다. 이를 아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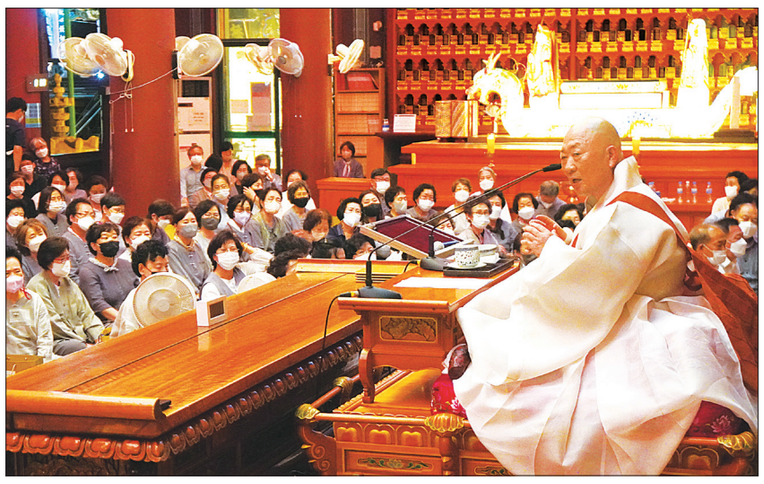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렁찬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수행정진해 온 선림원 재가불자들이 철야용맹정진을 앞두고 대원 대종사를 초청해 참선수행의 길, 그리고 법을 묻는 법석에서다.

조계사(주지 지현) 재가수행모임인 선림원(선림원장 남전)은 8월 24~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학산대원 대종사 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선림원은 2011년 간화선 교육과 실참을 통한 재가수행모임으로 개원한 이래, 매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간 중단된 바 있다. 이날 법석은 선림회 동문이 3년만에 한자리에 모인 선지식 초청 법회일 뿐 아니라, 조계종 원로의장 스님이 직접 설법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선이란 것은 문자를 떠난 차원의 세계라서 오늘 산승이 이 자리에서 선이 어떻다 말로하고 이야기 하게 되면 바로 저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 또한 큰 허물을 짊어지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상에 오른 대원 대종사는 첫 마디부터 주장자를 들어 말 없는 법을 전하는 뜻을 강조했다. 대원 대종사는 "산승이 묵연히 앉았다가 여러분을 보고 법상에서 내려와 떠나야 옳겠지만, 입을 열고 말을 했으니 허물이 적지 않다"며 "선을 하는 여러분들이기에 부득이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재세 당시 일화 하나를 전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중이 모여 법문을 들을 차에 부처님께서 법상 위에 가만히 말없이 앉았다. 이윽고 대중과 함께 앉았던 문수보살이 일어나 "오늘 법 안의 법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법왕의 법은 마쳤습니다"라며 죽비를 치고 퇴장했다. 이어 말없이 법상에서 내려온 부처님께 아난존자가 연유를 묻자 "내가 묵연히 앉은 이유를 상상근기인은 안다"고 답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수행정진해 온 선림원 재가불자들이 철야용맹정진을 앞두고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 대종사를 초청해 법문을 청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근기는 어떠하십니까? 상근기요, 중근기요, 하근기요."

대원 대종사의 질문은 곧장 선문답으로 이어졌다. 대종사는 묻고 대중들은 답하는 과정에서 때론 웃음이, 때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원 대종사는 과감한 대답에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틀렸다. 공부 더 하라"는 말로 죽비를 내리기도 했다.

"자고 일어난 남편이 부인을 보더니 눈을 꿈쩍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먼길을 간 남편이 서리를 맞고 고생을 해 기진맥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연유를 묻자 가슴만 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저기서 답변들이 쏟아졌다. 한동안 대중들의 답변을 듣던 대종사가 입을 열었다.

"참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심전심의 알아차림이 오늘 하나도 안되는 모습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눈 마주치면 척척 알아차려야지. 오늘 대중들이 수행 좀 했다고 들었는데 헛참선 한 것 아닙니까.(웃음)"

재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대종사의 입을 거쳐 곧 법문이 됐고, 대중들은 합장한 채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대종사는 "여러분이 참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 즉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항시 번뇌와 망상이란 이름의 도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디. 이어 "화두가 일념으로 이어지면 살고 화두가 끊기면 죽은 물건이니 산 사람이 아니다"고 설한 대종사는 "마음이라 함은 그 어떠한 물건도 아니니 여러분이 이를 바로 알아야 한다"며 "망상이 탁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는 놈이 무엇인고 참구하다보면 대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1시간 여 이어진 법문에 이어 대종사는 대중들에게 화두첩을 수여한데 이어, 입선죽비로 수행자들의 실참수행을 독려했다. 철야정진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45분 정진, 30분 방선으로 이어졌다.

법문에 앞서 주지 지현 스님은 "오늘 감로법을 전해주실 학산대원 대종사는 출재가 참선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선지식"이라며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화두와 법음의 참뜻을 얻기 위해 부단히 정진, 또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문화관광위원장 "불교공약 챙길 것"

8월 24일 원행 스님 예방서

홍익표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불교현안 관련 법안들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8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통문화 보존 관련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교를 비롯한 7대 종교계에서 기후위기 극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에 나서주시는 만큼 관련 예산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스님이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대정부 관련 사안을 잘 챙길 것"이라며 "전통문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원행 스님에 "지난 4년간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홍익표 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비구니종회의원 후보, 공명선거로 선출

첫 공식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전국비구니회, 8월 24일

선거철차 후보등록 마감

9월 15일 운영위원 선거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의원 10석에 출마할 후보를 내부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이는 비구니 종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8월 15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절차를 공고한데 이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및 회칙에 근거한 절차로,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이 공식선거 절차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비구니회는 관례적으로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대해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그동안 비구니 후보는 내부논의를 통해 추천돼 왔으나, 이번에는 종회의원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누구나 후보로 출마하고 선거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7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위원회가 선거절차를 확정, 공고한 바 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위원회는 8월 30일 후보 명부를 공개하고 9월 2일 오후 1시 2차 회의를 열어 접수된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한다. 선거기간은 9월 5일부터 14일까지로, 개별 선거운동 없이 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서류를 선거인단인 운영위원회에 2회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는 9월 15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제3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거를 통해 후보 10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가 10월 13일 예정된 만큼, 사전 선거를 통해 추천후보를 확정해 종단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서류등록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따르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무기관 및 전국비구니회 종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포교·사회활동 및 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단에 기여한 경력,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 선원에서 5안거 이상 성만, 승가대학·율원 및 교직자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출 경우 자격을 갖는다. 송지희 기자

한국불자네트워크 출범…관문사서 첫 법회

8월 20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첫 초청 법사로

이사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각 분야 지식인 60여명 참여

불자·비불자간 교류 토대로

각 분야에서 사회를 이끄는 지식인들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조직 '한국불자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첫 공식법문에 나선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을 잇고 미래를 계승하기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불자네트워크는 8월 20일 우면산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조직 출범에 기해 마련된 자리로, 60여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첫 법석으로 의미를 더했다.〈사진〉



한국불자네트워크는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을 이사장으로, 홍승기 동국대 명예교수를 상임대표로 운영된다. 출범을 주도한 홍승기 상임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한국불자네트워크는 종교와 출신, 연령 모두 고르게 분포돼 한국불교 발전과 사회화합을 위해 지혜를 교류하는 지식인교류모임으로 추진됐다"며 "특히 회원의 종교비율이 불자와 비불자 반반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역할하고 있는 분들로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고 지혜를 모아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불교는 대중성과 포용성을 갖고 일반 대중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지는 종교가 돼야 한다"며 "한국불자네트워크가 종교를 넘어 불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도 이어졌다. 백도웅 前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목사는 "상생하고 화합하는 종교인들의 만남은 우리사회 갈등을 방지하는 계기"라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원 스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불자네트워크는 매월 정기법회를 통해 회원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2023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있는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6(2022)년 8월 3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경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산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선정 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2년 9월	2022년 9~10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3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지원 없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9월 8일(목) ~ 9월 19일(월)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1) 2023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 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indrajs@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양진수(전화: 02-2031-2033)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통지

※신청기한 경과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